

폭력배 시민제보 잇따라

‘조계사 난입’ 보도나가자 인적사항 알려와

94.4.2

1994년 29일 새벽 조계사에 난입한 폭력배들의 폭행장면이 텔레비전과 신문 등을 통해 보도되면서 <한겨레신문>과 ‘범승가종단개혁위원회’, 수사기관 등에는 시민들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.

경기도 파주군 문산읍에 사는 시민은 1일 <한겨레신문>에 전화를 걸어 “텔레비전에 나온 화면을 보니 이번에 조계사에 난입한

폭력배들 가운데는 문산에 근거지를 둔 ‘광희파’ 조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”고 말했다. 이 시민이 지목한 폭력배는 최아무개(28)씨 등 3명으로, 확인 결과 이들은 모두 지난 90년 10월 폭력 혐의로 구속됐다가 다음해인 91년 8월 출소한 전과자들인 것으로 밝혀졌다.

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사는 한 시민은 “평소 내가 알고 지내던

정아무개씨 본인으로부터 자신이 이번 조계사 폭력사태에 개입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”며 “정씨는 영등포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”라고 말했다. 이 시민은 “사건 당시 정씨는 부하 행동대원 10명과 함께 서울호텔에 묵었으며 일이 끝난 뒤 한사람당 25만원씩의 수고비를 총무원측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”고 말했다.

또 1일자 <한겨레신문>에 실린 사진의 과청년은 ‘오일’이라는 이름의 명동파 행동대원이라는 제보도 접수됐다.

이번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2부에도 텔레비전을 본 시민들로부터 폭력배들의 인적사항을 포함해 구체적인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.

정진규 공안2부장은 “폭력배의 구체적인 신원과 주소지, 활동장소 등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 6~7명에 대해 경찰에 검거를 지시했다”면서 “폭력배들은 주로 도박장이나 유흥업소 주변의 사람들인 것으로 파악된다”고 밝혔다.

또 ‘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’에도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.

범종추측은 이날 “믿을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조계사에 난입한 폭력배는 서울뿐 아니라 울산, 대구 등 지방에서도 동원됐다”며 “총무원 규정부 계장 고종록씨와 무송 스님은 영등포계와 목포계를, 불국사 주지 종원 스님의 상좌 삼현 스님은 울산 폭력배를, 사요 스님은 대구 폭력배를 각각 동원했다”고 주장했다.